

2020년 7월 2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편더맨탈 시장으로 변화하는 미 증시 실적 호전 기업 강세 Vs. 부진한 실적 우려 기업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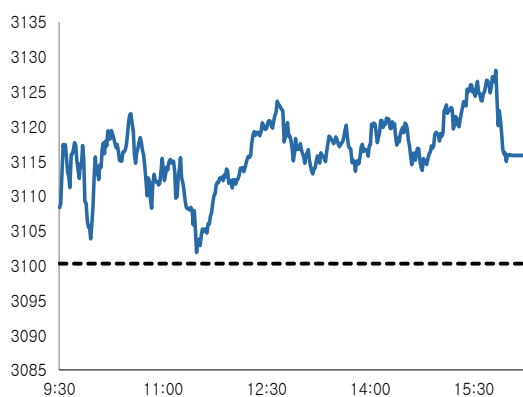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실적에 주목한 시장

미 증시는 화이자(+3.18%)의 긍정적인 코로나 백신 임상 데이터 발표 및 경제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 더불어 일부 기업들이 실적 개선을 비롯한 호재성 재료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이 이어지자 경기 민감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차별화는 지속. 한편, 최근 상승폭이 컸던 일부 종목은 차익 매물 출회도 특징(다우 -0.30%, 나스닥 +0.95%, S&P500 +0.50%, 러셀 2000 -0.97%)

미 증시는 ①코로나 백신 데이터 ②경제지표 ③개별 기업 이슈의 영향으로 변화. 먼저 화이자(+3.18%)가 연구중인 코로나 백신 1 차 임상 데이터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발표. 특히 백신 투여 환자들이 코로나 19 회복 환자들의 항체보다 1.8~2.8 배 더 높은 수준의 중화항체가 생성됐으며 일부 부작용이 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 다만, 관련 소식은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 더불어 트럼프가 국민들이 대규모 직접 자금 지원을 원한다며 추가적인 부양정책을 시사하고, 연준은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경기 불안을 이유로 당분간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해 잠시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으나 재차 매물 출회되며 제자리로 돌아옴

한편, ADP 는 6 월 비농업 고용자수가 예상(350 만건) 보다 부진한 236.9 만건 증가로 발표. 그러나 지난 달 수치가 276 만건 감소에서 306.5 만건 증가로 수정해 논란이 있었던 고용보고서에 대한 불안을 해소. 목요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서 지난 달 예상(-800 만건)과 달리 250.9 만건 증가했다고 발표 했었는데 당시 수치 오류 가능성이 제기. 여기에 ISM 제조업지수가 예상(49.0)을 상회한 52.6 으로 발표돼 경기 회복 기대를 높임. 이런 가운데 알파벳(+1.69%)이 구글 TV 의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페덱스(+11.72%)도 양호한 실적 발표에 기대 강세를 보이는 등 실적 호전 기대를 높인 기업들이 상승. 다만,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를 이유로 일부 주 정부가 섰다운 조치를 언급해 코로나 피해 업종은 부진이 지속. 이는 시장이 실적과 지표에 주목하는 편더맨탈 시장으로 변화 했음을 보여줌.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2,106.70	-0.08	홍콩恒生		24,427.19	휴장
KOSDAQ		727.58	-1.41	영국		6,157.96	-0.19
DOW		25,734.97	-0.30	독일		12,260.57	-0.41
NASDAQ		10,154.63	+0.95	프랑스		4,926.94	-0.18
S&P 500		3,115.86	+0.50	스페인		7,227.40	-0.06
상하이종합		3,025.98	+1.38	그리스		641.43	+0.40
일본		22,121.73	-0.75	이탈리아		19,330.88	-0.2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스트리밍 회사 급등 Vs. 반도체 업종 급락

화이자(+3.18%)는 코로나 백신 임상 데이터가 양호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보였다. 특히 보도자료만 내놓은 모더나(-4.08%)와 달리 자세한 데이터를 제공 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아지자 모더나는 물론 치료제 기대가 높은 길리어드사이언스(-1.14%) 등은 부진했다. 암젠(+8.17%)은 노바티스(+0.58%)와의 특허 분쟁 소식에 기반 급등했으며 머크(+1.02%)는 대장암 치료제인 키트루다의 FDA 승인 소식에 기반해 상승했다. 한편, 알파벳(+1.69%)은 구글TV의 월 비용을 올리자 실적 개선 기대 속 강세를 보였으며, 넷플릭스(+6.72%)는 관련 소식과 투자의견 상향 소식에 기반 급등했다. 디즈니(+1.35%), 아마존(+4.35%)도 동반 상승했다. 페덱스(+11.72%)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로 급등했으며 UPS(+2.91%)도 동반 상승했다.

애플(-0.19%)은 30여곳의 매장 폐쇄 발표로 하락했고, JP모건(-0.85%) 등 금융주 및 엑손모빌(-2.26%) 등 에너지 업종은 코로나 우려 속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마이크론(-3.53%), 자일링스(-5.20%) 등 양호한 가이드언스를 발표해 전일 급등했던 반도체 업종은 차익 매물과 D램 가격 하락이 지속되자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급락했다. GM(-1.34%), 포드(-1.64%) 등 자동차 업종은 1분기 판매 급감 소식 여파로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91%	대형 가치주 ETF(IVE)	-0.06%
에너지섹터 ETF(OIH)	-2.89%	중형 가치주 ETF(IWS)	-0.55%
소매업체 ETF(XRT)	+0.40%	소형 가치주 ETF(IWN)	-1.91%
금융섹터 ETF(XLF)	-0.86%	대형 성장주 ETF(VUG)	+1.12%
기술섹터 ETF(XLK)	+0.17%	중형 성장주 ETF(IWP)	+1.0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80%	소형 성장주 ETF(IWO)	-0.01%
인터넷업체 ETF(FDN)	+2.30%	배당주 ETF(DVY)	-0.84%
리츠업체 ETF(XLRE)	+2.70%	신흥국 고배당 ETF(DEM)	+1.41%
주택건설업체 ETF(XHB)	-1.5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04%
바이오섹터 ETF(IBB)	+0.50%	미국 국채 ETF(IEF)	-0.16%
헬스케어 ETF(XLV)	+0.77%	하이일드 ETF(JNK)	-0.28%
곡물 ETF(DBA)	+1.22%	물가연동채 ETF(TIP)	+0.05%
반도체 ETF(SMH)	-1.15%	Long/short ETF(BTAL)	+0.4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80.30	-2.49%	-0.59%	-10.63%
소재	355.52	+0.19%	+3.46%	-2.49%
산업재	578.19	-0.48%	+2.62%	-3.84%
경기소비재	1,069.88	+1.76%	+2.75%	+3.50%
필수소비재	601.63	+0.05%	+1.35%	-1.70%
헬스케어	1,176.09	+0.71%	+3.19%	-1.25%
금융	381.50	-1.04%	-0.26%	-7.03%
IT	1,842.03	+0.10%	+2.40%	+5.30%
커뮤니케이션	183.90	+2.23%	+1.55%	+0.15%
유틸리티	293.53	+2.29%	+2.28%	-5.64%
부동산	221.96	+2.57%	+5.18%	-1.5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실적 추정치 상향 종목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4%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1.13%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01.4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수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 ISM 제조업지수가 기준선인 50 을 상회한 52.6 으로 발표돼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진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여기에 ADP 민간 고용보고서 결과는 오늘 저녁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 대한 불안을 일부 완화 시켰기에 우호적이다. 특히 시장 일각에서는 전월 수치가 하향 조정돼 미국 고용불안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백신 임상 데이터 관련 호재성 재료도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주목할 부분은 결국 펀더멘탈이다. 최근 미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이 증시 주변 이슈보다는 지표와 실적 발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KOSPI 12M FWD 영업이익은 2021 년 1 분기 실적이 포함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치는 5 월초 저점을 형성한 이후 뚜렷한 증가 없이 140 조원 내외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내년 1 분기 전망치 개선이 기대되고 있으나 2 분기 3 분기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업종별 차별화도 극명하게 나오고 있다. IT 가전을 비롯해 IT 하드웨어는 물론 건강관리 등 언택트 관련 업종은 2,3 분기에도 상향 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호텔, 레저, 철강을 비롯한 경기 민감주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업종 차별화 속 실적 개선 종목등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고용불안 완화, 제조업지수 개선

6 월 미국 ADP 민간고용보고서 결과는 비농업고용자수가 예상(350 만건)을 하회한 236.9 만건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전월 수치가 276 만건 감소에서 306.5 만건 증가로 수정돼 불안은 크지 않았다. 한편, 6 월 대량 해고자수는 전월(397,016 건) 보다 개선된 170,219 건으로 감소했다.

6 월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43.1)이나 예상(49.0) 보다 개선된 52.6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신규수주(31.8→56.4)나 생산지수(33.2→57.3)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고용지수 또한 32.1에서 42.1로 증가했다.

5 월 미국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전월(mom -3.5%) 보다는 양호했으나 예상(mom +0.8%) 보다는 부진했다. 민간부문은 전월 대비 3.3% 감소한 가운데 공공부문이 1.2% 증가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약세

국제유가는 제조업지수 개선에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EIA 가 지난 주 원유재고에 대해 예상보다 큰 720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한 점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쿠싱지역 원유 재고가 164 만 배럴 감소와 달리 26 만 배럴 감소에 그친 점, 가솔린 재고가 158 만 배럴 감소 예상과 달리 120 만 배럴 증가해 국제유가 상승을 제한 했다. 더불어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뉴욕 등 일부 주 정부의 봉쇄 정책 발표 등도 부담이었다.

달러화는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경제지표 개선에 기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된 점, 독일의 소매판매 급증(mom +13.9%) 등 유럽 경제 지표 호전에 따른 유로화 강세 등도 달러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달러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점도 특징이었다. 한편, 남아공 란드화, 브라질 헤알화는 물론 호주 달러 등 상품 및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강세폭이 컸다.

국채금리는 코로나 백신 임상 데이터의 긍정적인 발표 및 경제지표 호전에 기대 상승했다. 특히 ADP 민간고용보고서에서 지난달 수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해 고용 불안 요인이 완화 되었고, ISM 제조업지수 또한 기준선을 훌쩍 뛰어 넘어 경기 회복 기대를 확대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등을 감안 상승폭이 제한 되었다.

금은 달러 약세 불구 지표 호전과 코로나 백신 소식에 기반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며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9.82	+1.40	+4.76	Dollar Index	97.144	-0.25	-0.00
브렌트유	42.03	+1.84	+3.70	EUR/USD	1.1253	+0.17	+0.02
금	1,779.90	-1.14	+0.27	USD/JPY	107.46	-0.44	+0.39
은	18.218	-2.25	+2.29	GBP/USD	1.2477	+0.61	+0.47
알루미늄	1,621.00	+0.09	+2.86	USD/CHF	0.9456	-0.18	-0.24
전기동	6,061.00	+0.76	+3.34	AUD/USD	0.6916	+0.19	+0.68
아연	2,041.50	-0.29	+0.25	USD/CAD	1.3584	+0.06	-0.40
옥수수	350.50	+2.64	+7.19	USD/BRL	5.3197	-2.67	-0.50
밀	498.75	+1.42	+2.68	USD/CNH	7.0681	-0.03	-0.16
대두	899.00	+1.90	+3.33	USD/KRW	1203.40	+0.03	+0.33
커피	104.00	+2.97	+6.34	USD/KRW NDF 1M	1201.46	+0.19	-0.39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69	+1.31	-0.98	스페인	0.498	+3.40	+3.30
한국	1.400	+1.50	+3.80	포르투갈	0.468	-0.30	+1.50
일본	0.047	+1.90	+3.20	그리스	1.169	-3.10	-9.10
독일	-0.395	+5.90	+4.50	이탈리아	1.269	+1.30	+0.40